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올들어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해 금융당국이 경영진 2차 면담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호남지역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찾아 건전성 관리강화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4영업일간 상호금융검사장이 신협 및 농·축협 총 24개 조합을 방문한다. 신협 이사장과 중앙회 지역본부 간부 등을 포함 총 29명을 면담할 계획이다.

최근 상호금융조합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금감원, 내일부터 4영업일간 24개 조합 방문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해석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은 51조6000억원으로 전년말(44조1000억원)대비 17.0% 늘었다. 같은기간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4.0%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큰 상승세다.

이에 조합에 방면해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면담을 실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합별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특징, 증가사유, 건전성 현황, 세부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상호금융권 DSR' 운영현황 등도 파악한다. 특히 부동산과 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당부할 계획이다. 추석을 맞아 실수요 개인사업자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도 요청한다.

또한 상호금융권 여신거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해당지역 지역업자의 어려움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처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조합이 겪는 어려움을 관련기관에 통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청신호

민간사업자 공모에 호반·국제자산 사업계획서 제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 주택건설 및 레저분야 강자인 (주)호반과 국제자산신탁(주) 등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광주시가 7일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년 이상 담보상태인 광주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민간사업자 2차 공모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사업계획서 접수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달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을 확정해 사업계획서 평가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 과정에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면서 시민 알 권리 충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시민평가단 구성을 위해 공모와 5개 자치구 추천을 받아 후보군 153명을 구성하고 지역별 선정인원을 고려해 최종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승 시 관광진흥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8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부지는 빈 터로 남겨 뒀고, 사업은 장기 포류돼 왔다.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시는 장기 담보상태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열어 시민, 중소기업 단체와 합의의 양을 마련하고 상가시설 면적을 2만4170㎡ 이하로 제한하며, 숙박 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토록 한 뒤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서은홍 기자

추석 앞두고 배추·무 가격 하락세

정부 "성수품 모니터링 지속·필요시 추가수급안정대책 검토"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 들어 배추·무의

소매가격이 정부의 비축물량 공급 확대와 출하량 증가 등에 힘입어 상당폭 하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 농

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 기준으로 이날 배추 1포기당 가격은 8807원으로 최근 고점인 지난달 28일(8311원)보다 1504원(-18.1%) 하락했다. 무 가격도 같은 기간 4047원에서 3653원으로 394원(-9.7%) 떨어졌다.

다만 예년 이맘때 배추와 무의 가격이 각각 4681원, 2062원이었던 점

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의 수급·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수급안정대책도 검토·시행할 방침"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성수품 가격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촌 고령화 대안 '농지연금 인기'

신규가입 44% 증가...고령농가 소득 부족분 해결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지난달 말 기준 전년대비 44% 상승한 1948명에 누적가입자 수는 1만 579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신규 가입자 수 1848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공사는 올 연말까지 신규 가입자 수 1만8000명을 목표로 사업 추진과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매년 가입자 수 증가가 대변하는 농지연금 인기 비결은 '가입자 중심의 알찬 상품설계'를 꼽을 수 있다.

보통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고 있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상품가입 후 해당 자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 된다.

장점 중 하나인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도 빼 놓을 수 없다. 실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은 평균 718만원인 가운데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은 가입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특히 토지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자격 조건에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된 경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과 가입조건은 전화(1577-7770) 또는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계자는 "농촌이 급속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면서 "많은 농업인이 연금에 가입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롯데백, 여성전문 데님 브랜드 에토르핏 론칭 롯데백화점이 7일 서울 소공동 본점 파슨스 매장에서 여성전문 데님 브랜드 '에토르핏'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7일부터 본점, 잠실, 영등포 등 전국 파슨스 매장에서 여성전문 데님 브랜드인 '에토르핏'을 론칭해 판매한다.

오늘 Lotto 제 823회차 당첨결과 (2018년 9월 8일 추첨)

12 18 24 26 39 40 + 15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9	2,009,843,917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1	49,422,39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348	1,283,97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2,065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95,737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후일인 경우 약정업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